



STL MARKET REPORT

Weekly Focus No.250

Updated May 28, 2019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Contents

Issue & Trend	1
Bulk Carrier	6
- BC Sales Report	
Tankers	10
- Tanker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4
Key Indicators	17
STL News & Information	19
Contact Information	21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 . ISSUE & TREND

1. 조선 빅 3, 6000 억원 규모 포스코발 해양 수주 빛볼까

국내 조선 빅 3(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가 6,000 억원 규모 포스코발 해양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 사업으로 해양설비 일감 기근 해소가 기대된다. 다만 해양설비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라 수주 실현 가능성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 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이하 포스코인터)은 오는 2021 년 첫 가스 생산을 위해 미얀마 가스전 쉘(SHWE) 생산정 개발 프로젝트 3 단계 기본설계(FEED)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는 쉘 프로젝트에 투입될 5,700 억원(약 5 억 달러) 규모의 1 만톤급 상부구조(탑사이드) 및 1 만 3,000 톤급 대형 구조물 지지대(스틸 재킷) 건조를 위해 지난해 말 국내외 잠재후보들에게 입찰제안서를 발송했다. 입찰에는 국내 조선 빅 3 를 비롯해 싱가포르 샘코프마린 등 5 개사가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계에는 기존 수주한 해양설비 대비 규모는 작지만 조선 빅 3 의 입찰 선점을 고대하는 분위기다. 이 중 포스코인터로부터 미얀마 가스전 1 단계 사업을 수주한 현대중공업의 수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오는 하반기 해양 공장 가동을 재개하지만 조선 빅 3 중 해양 일감이 가장 부족한 만큼 이를 위해서도 이들 해양설비를 수주해야 한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경우도 추가 해양 일감 확보를 위해 다수의 수주전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업계는 과거 해양 수주를 위해 경쟁했던 샘코프마린 등 경쟁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샘코프마린은 지난 2017 년 대우조선과 요한 카스트버그 프로젝트의 해양설비를 수주한 바 있다.

포스코인터는 우선 5 개사 중 해당 해양설비 기본설계 사업자 2 곳을 선정한다. 이후 1 곳이 해당 해양설비 건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발주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오는 2021 년 가스 생산을 위해서는 올해 안으로 발주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규모와 크기는 작지만 포스코가 미얀마가스전 생산 개발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수주 경쟁이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며 "해양 일감 확보는 모든 조선사 최대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I . ISSUE & TREND

2. 고려해운, 태국 항구에서 선박 폭발해 140 여명 이상 사상자 발생

태국 동부지방 렘 차방(LAEM CHABANG) 항구에서 고려해운 선박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태국에 있는 로이타와 매릿타임볼튼 등 외신매체는 지난 25 일(현지 시간) 태국의 항구에 정박 중이던 한국 해운사인 고려해운 소속 선박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143 명이 부상당했고 37 명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중 일부는 눈과 목에 자극을 호소했다. 사고가 발생한 선박에는 676 개의 컨테이너가 있었으며 이중 443 개의 컨테이너는 하역을 완료했다.

폭발 화재에 의해 파손된 5 개의 컨테이너에는 '액체 파라핀'이 보관돼 있었고, 13 개의 컨테이너에는 소독제나 표백제로 쓰이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이 보관돼 있었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상온에서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고온에서 산소와 염소가스 열을 방출하면서 폭발하는 성질이 있다.

주 태국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 시 55 분 방콕에서 동남쪽으로 약 120 km 떨어진 렘 차방 항구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해당 선박은 고려해운 소속 1 만 6,000T 급 컨테이너선 'KMTC 홍콩' 호이다. 이날 로이타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렘 차방 항구 담당관 유타나 모카오(YUTHANA MOKKAO)씨는 "한국 컨테이너 선박에서 붉은 불꽃과 두꺼운 흑색 연기가 쏟아졌다"고 말했다.

이 폭발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은 피부 가려움증을 호소했다. 하지만 피부를 태우고 흉통을 일으키는 액체물질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화재 발생 9 시간여 만에 불길은 잡혔다. 다만 컨테이너를 모아 둔 선박 내에서 연기가 계속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인해 렘 차방 항구의 2 개 부두는 폐쇄 됐으며 태국 당국은 화재의 원인을 조사중이다.

한편 렘 차방 항구는 7 개의 컨테이너선 터미널로 구성돼 있으며 이에 더해 다용도 터미널, 로로선 터미널, 일반화물 터미널, 조선소 터미널 등을 각각 하나씩 보유중이다. 태국 최대의 항구로 1988 년부터 개발이 시작됐다.

I . ISSUE & TREND

3. 조선 후판가격 상반기 동결할 듯...철강업계 "하반기 인상 기약"

선박 건조에 사용되는 '후판' 가격 상반기 협상이 '동결'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후판 가격을 인상하면 점차 회복되는 업황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조선업계 주장에 힘이 실린 것이다. 국내 철강업계와 조선업계는 지난해 말부터 후판 가격 인상을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나빠진 철강업계는 하반기에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7일 철강·조선업계에 따르면, 조선업계과 철강업계는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올 상반기 조선용 후판가격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각 업계 '만형'인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은 올 상반기 후판가격을 동결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후판 가격을 결정하는 협상은 업체별로 반기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 한다.

현대중공업은 1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올해 후판가 협상과 관련해 7~8% 인상을 예상했지만, 현재 협상 과정을 볼 때 가격 수준이 전년도 말 수준, 혹은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협상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지만 장기화 양상을 보였다. 철강업체들이 톤당 5만원 가격 인상 방침을 전하자 조선업계가 강하게 반발해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철강업계는 톤당 2만~2만 5,000원선으로 인상폭을 낮춰 협상에 나섰다. 조선 업계는 업황 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동결을 주장했다.

후판은 선박 건조 비용의 약 20%를 차지한다. 후판 가격이 인상되면 조선사들은 상승분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조선사들은 수주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선가가 그만큼 오르지 않아 실적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수주가 늘면서 조선업황이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실적으로 반영되려면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영국 클락슨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초대형 유조선(VLCC) 선가는 9,300만달러다. 업황이 좋았던 2009년 1월 1억 4,800만달러를 크게 밑돌고, 수주절벽이 가시화하던 2014년 6월 1억달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I . ISSUE & TREND

철강업계는 하반기 후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광석 등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반영해 후판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톤당 63달러대에 거래됐던 철광석은 지난 24일 100달러대로 급등했다.

철강업계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자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 포스코는 올해 1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 8,325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보다 18% 줄었다. 현대제철은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3% 줄어든 1,689억 원을 기록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2분기에도 이익 감소 추세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 고개드는 연내 금리인하론.. 미중 무역분쟁에 환율 '변수'

기준금리 인하 단계가 아니라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연 이은 부인에도,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예상 시기가 점점 당겨지고 있다. 이르면 3분기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전문가의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6일 경제·금융전문가 12명 중 4명(33%)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지난달 조사에서는 12명 중 1명이었다. 미·중 2차 무역갈등으로 인한 수출 타격과 낮은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경기가 더 악화하면 1,200원 돌파를 앞두고 잠시 주춤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도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오는 31일 금융통화위원회는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가능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경로 변경을 가능해볼 수 있는 조짐은 '소수의견'의 등장 여부다. 금통위원들이 소수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금리 기조를 바꿀만한 유인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올해 한은이 보다 완화적 정책을 펼칠 것이란 전문가들의 전망도 늘고 있다. 12명 중 4명이 연내 동결에서 인하로 전망을 변경했고, 이르면 7월 기준금리 인하를 점치는 곳도 등장했다. 김지만 현대차투자증권 책임연구원은 "수정 경제전망이 발표되는 7월 금통위에서 물가와 성장률 조정과 함께 금리인하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의 위안화 절하로 관세부과를 비켜가는 것조차 용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면서 최근 국내경제 불안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환율 전망에도 이목이 쏠린다. 안 그래도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환율 절하를 용인하는 것으로 비쳐 미국의 관세부가 대상으로 지목될 수도

I . ISSUE & TREND

있어서다. 금리가 내려가면 우리나라에 투자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줄어들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압력을 받게 된다.

앞으로 원·달러 환율은 빅피겨(큰숫자)로 여겨지는 1,200 원 돌파 여부가 주목된다. 응답한 전문가 11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 명(54%)이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200 원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조용구 신영증권 선임연구원은 “다음달 말 G20 정상회의를 전후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데, 만약 미·중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면 최대 1,230 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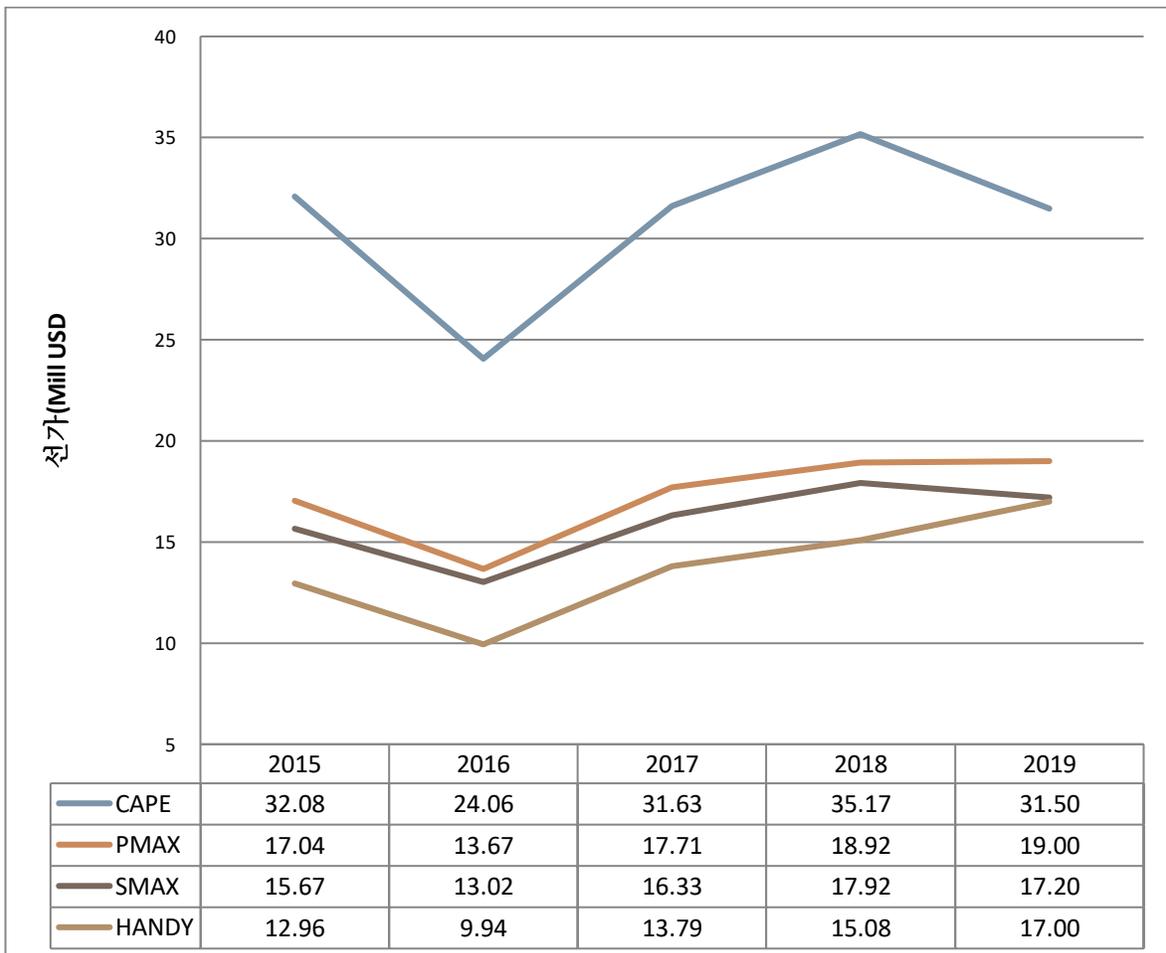
II .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연평균 선가	2015	2016	2017	2018	2019
Capesize 180K	32.08	24.06	31.63	35.17	31.50
	-31.45%	-24.99%	31.43%	11.20%	-10.44%
Panamax 76K	17.04	13.67	17.71	18.92	19.00
	-30.16%	-19.80%	29.57%	6.82%	0.42%
Supramax 58K	15.67	13.02	16.33	17.92	17.20
	-36.04%	-16.91%	25.44%	9.69%	-4.02%
Handysize 37K	12.96	9.94	13.79	15.08	17.00
	-33.20%	-23.32%	38.78%	9.37%	12.73%

□ BC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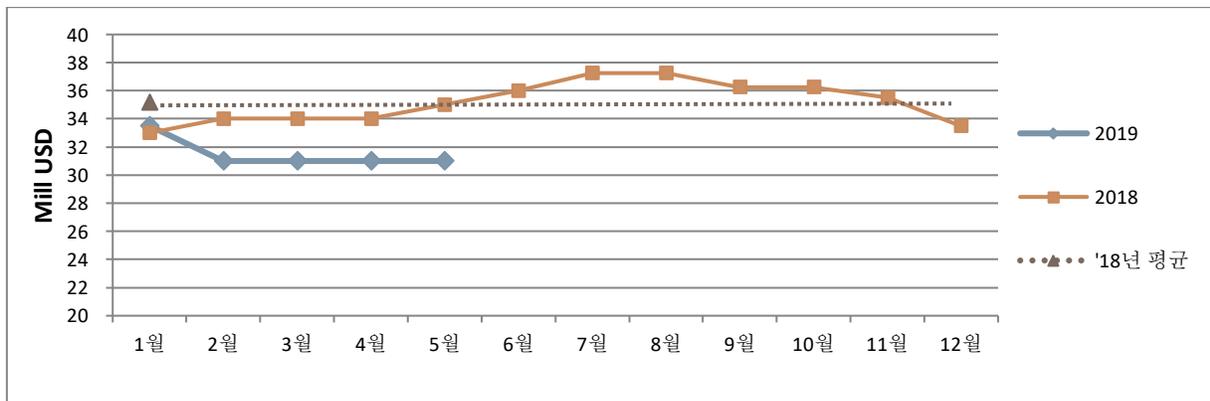




II . BULK CARRIER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평균	
2019	CAPE 180K	선가	33.50	31.00	31.00	31.00	31.00		31.50
		전월대비	0.0%	-7.5%	0.0%	0.0%	0.0%		-
		전년대비	1.5%	-8.8%	-8.8%	-8.8%	-11.4%		-10.4%
	PMAx 76k	선가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전월대비	0.0%	0.0%	0.0%	0.0%	0.0%		-
		전년대비	2.7%	2.7%	0.0%	0.0%	0.0%		0.4%
	SMAx 58k	선가	18.00	17.00	17.00	17.00	17.00		17.20
		전월대비	0.0%	-5.6%	0.0%	0.0%	0.0%		-
		전년대비	2.9%	-2.9%	-5.6%	-5.6%	-5.6%		-4.0%
	HNDY 37k	선가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전월대비	13.3%	0.0%	0.0%	0.0%	0.0%		-
		전년대비	21.4%	21.4%	13.3%	9.7%	9.7%		12.7%
2018	CAPE	33.00	34.00	34.00	34.00	35.00	36.00		35.17
	PMAx	18.50	18.50	19.00	19.00	19.00	19.00		18.92
	SMAx	17.50	17.50	18.00	18.00	18.00	18.00		17.92
	HANDY (32k)	14.00	14.00	15.00	15.50	15.50	16.00		1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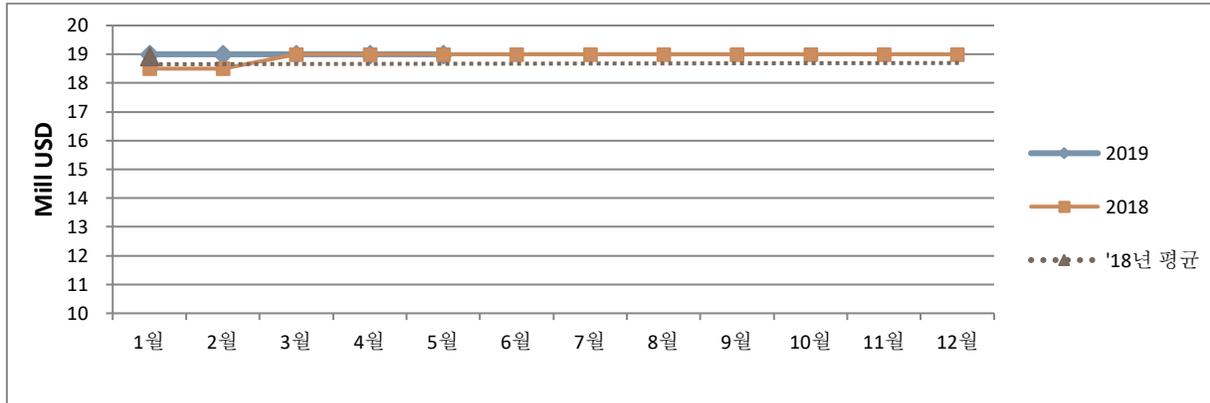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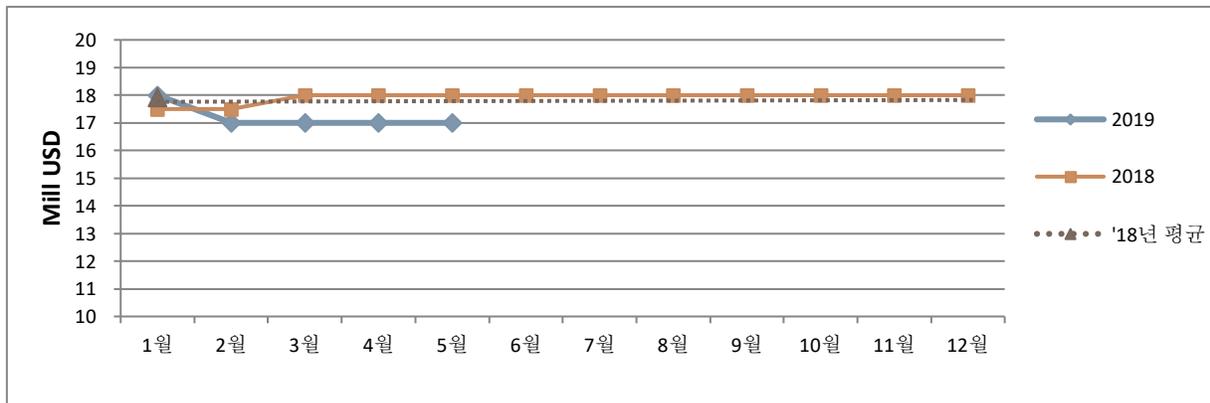


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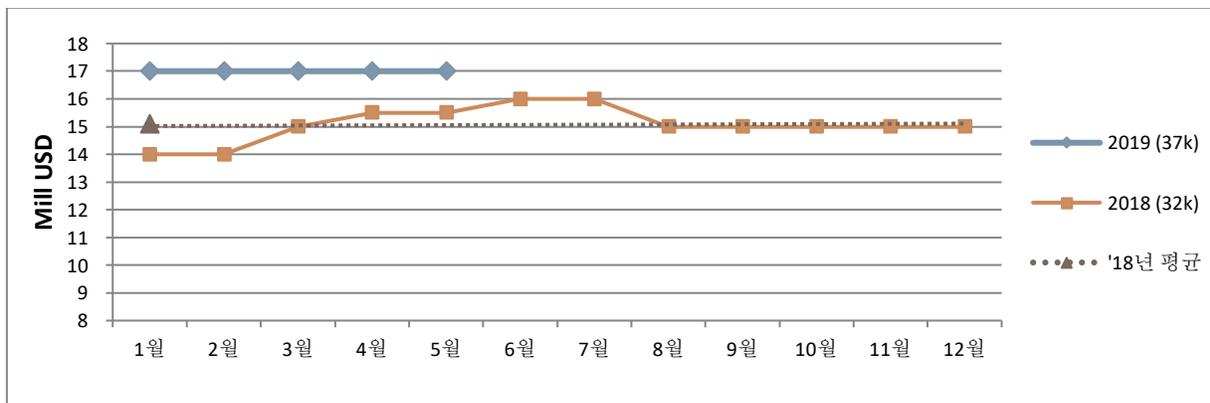
□ Panamax



□ Supramax



□ Handy





II . BULK CARRIER

III-1.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VLOC	PACIFIC GLORY	233,694	2004	JAPAN	B&W		14.6	U.K. buyer (Zodiac), SS/DD due
BC	IRON FRITZ	176,298	2003	JAPAN	B&W		12-12.2	Chinese buyer
BC	MINERAL CHINA	171,128	2003	KOREA	B&W		14	Undisclosed buyer, incl. 3-yr TC back
BC	CHRIS	76,629	2006	JAPAN	B&W		10.7	Undisclosed buyer
BC	VIL BALTIC	57,021	2010	CHINA	B&W	C 4x30t	9.85	Chinese buyer
BC	HENG CHANG	42,717	1997	JAPAN	SULZ	C 4x30t	4.1-4.3	Vietnamese buyer
BC	CLIPPER IWAGI	28,189	2010	JAPAN	B&W	C 4x30.7t	7.8	Greek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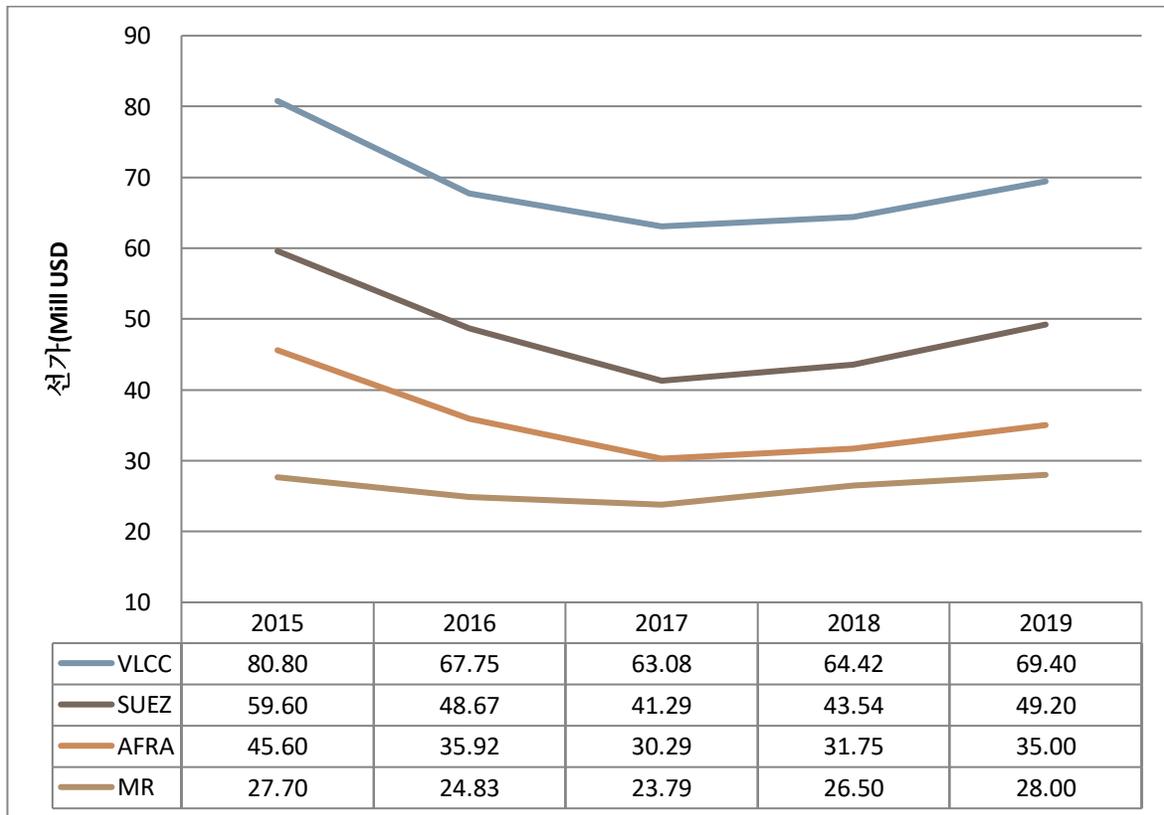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VLCC 310K	80.80	67.75	63.08	64.42	69.40
	9.04%	-16.15%	-6.89%	2.11%	7.73%
Suezmax 160K	59.60	48.67	41.29	43.54	49.20
	17.32%	-18.34%	-15.15%	5.45%	13.00%
Aframax 105K	45.60	35.92	30.29	31.75	35.00
	17.83%	-21.24%	-15.66%	4.81%	10.24%
MR 51K	27.70	24.83	23.79	26.50	28.00
	2.97%	-10.35%	-4.19%	11.38%	5.66%
Chemical Tanker IMO II 13K	12.60	13.92	12.42	11.77	11.05
	-3.08%	10.45%	-10.78%	-5.20%	-6.12%

□ TANKER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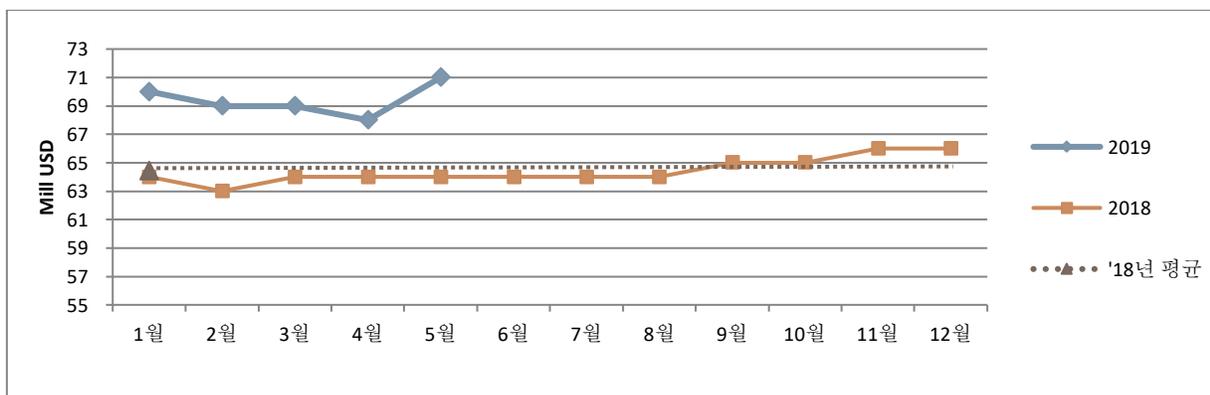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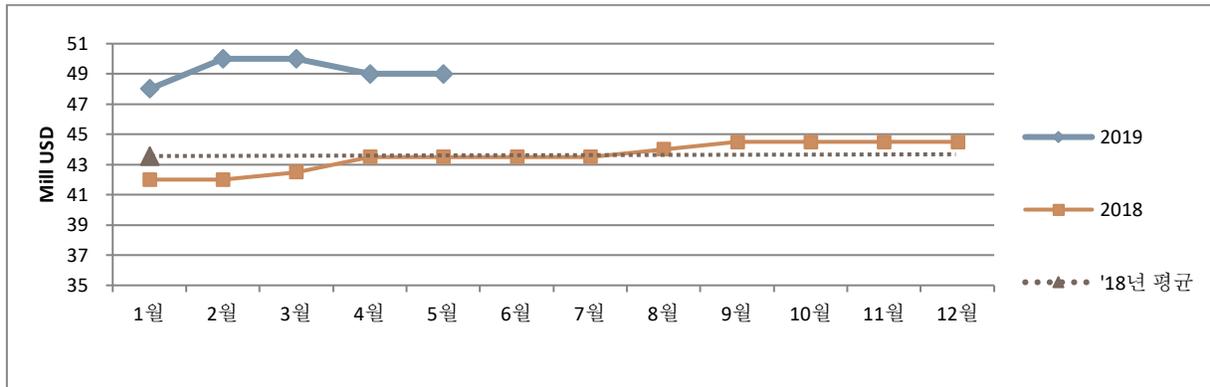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2018	VLCC 310K	선가	70.00	69.00	69.00	68.00	71.00		69.40
		전월대비	6.1%	-1.4%	0.0%	-1.4%	4.4%		-
		전년대비	9.4%	9.5%	7.8%	6.3%	10.9%		7.7%
	SUEZ 160K	선가	48.00	50.00	50.00	49.00	49.00		49.20
		전월대비	7.9%	4.2%	0.0%	-2.0%	0.0%		-
		전년대비	14.3%	19.0%	17.6%	12.6%	12.6%		13.0%
	AFRA 105K	선가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전월대비	6.1%	0.0%	0.0%	0.0%	0.0%		-
		전년대비	9.4%	16.7%	12.9%	9.4%	9.4%		10.2%
	MR 51K	선가	28.00	28.00	28.00	28.00	28.00		28.00
		전월대비	1.8%	0.0%	0.0%	0.0%	0.0%		-
		전년대비	12.0%	12.0%	7.7%	4.7%	4.7%		5.7%
CHEM IMO2 13K	선가	11.00	11.25	11.00	11.00	11.00		11.05	
	전월대비	0.0%	2.3%	-2.2%	0.0%	0.0%		-	
	전년대비	-15.4%	-10.0%	-12.0%	-10.2%	-6.4%		-6.1%	
2017	VLCC	64.00	63.00	64.00	64.00	64.00	64.00	64.42	
	SUEZ	42.00	42.00	42.50	43.50	43.50	43.50	43.54	
	AFRA	32.00	30.00	31.00	32.00	32.00	32.00	31.75	
	MR	25.00	25.00	26.00	26.75	26.75	26.75	26.50	
	CHEM	13.00	12.50	12.50	12.25	11.75	11.50	11.77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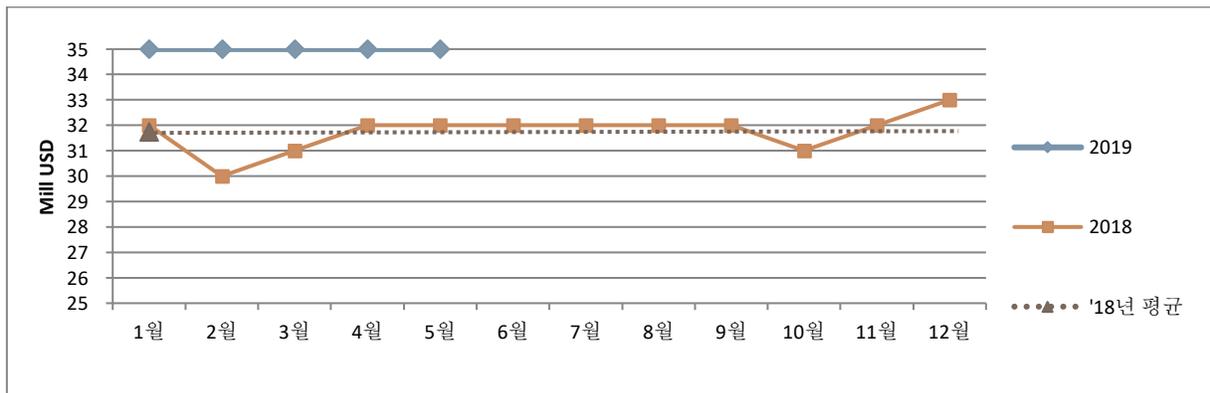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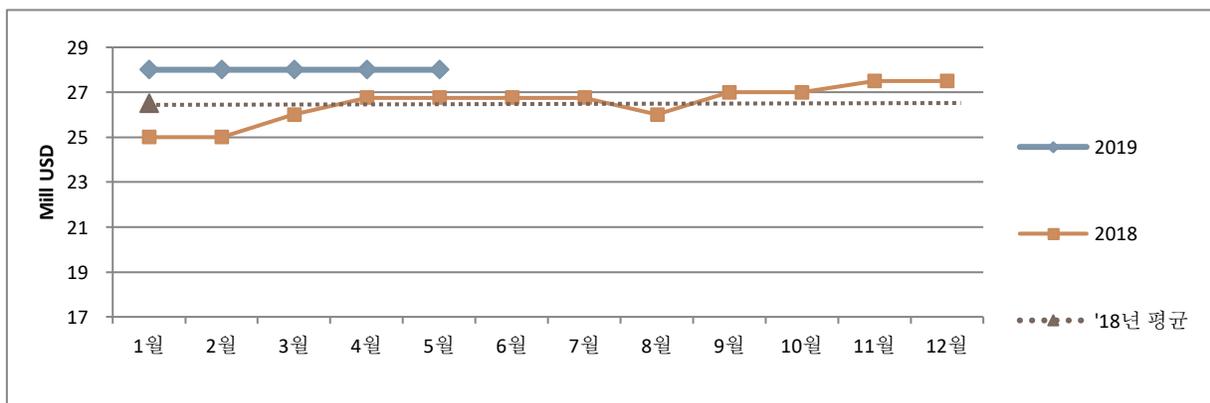
□ SUEZMAX-160K



□ AFRAMAX-105K



□ MR-51K



III. TANKER

IV-1. Tanker Sales Reported

1) TANK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BRIGHTOIL GLORY	319,819	2012	KOREA	B&W		58	Action sale, Greek buyer (Delta Tankers)
TANKER	JAG LAADKI	150,284	2000	JAPAN	SULZ		13.2	Monaco buyer (Andromeda Shipping)
TANKER	EAGLE BEAUMONT	99,448	1996	KOREA	B&W		8.2	Undisclosed buyer
TANKER	FIDELITY II	48,020	2011	JAPAN	B&W		18.1-18.5	Undisclosed buyer
TANKER	HIGH POWER	46,866	2004	JAPAN	B&W		8.2-8.5	Singaporean buyer (Jaldhi), SS/DD due Sept '19
TANKER	UACC STRAIT	45,800	2004	JAPAN	B&W		8.8	Undisclosed buyer
TANKER	PARSIFAL II	37,606	2008	KOREA	B&W		12.5	Undisclosed buyer
TANKER	LAGAN (asphalt carrier)	7,197	2008	SPAIN	MAK		4	Middle Eastern buyer
OIL /CHEM	GLENDA MEGAN	47,147	2009	KOREA	B&W		17	Danish buyer (Celsius)
OIL /CHEM	CELSIUS PENANG	37,255	2004	KOREA	B&W	2&3	8	Indonesian buyer
OIL /CHEM	CELSIUS PERTH	37,217	2004	KOREA	B&W	3	8	

2)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JPO CAPRICORNUS	51,622	2005	KOREA	B&W	4132	TEU	8.6	Danish buyer (Celsius), Incl. T/C to Maersk
CONT	ATHENS BRIDGE	50,504	2009	KOREA	WART	4228	TEU	9.2	S.Korean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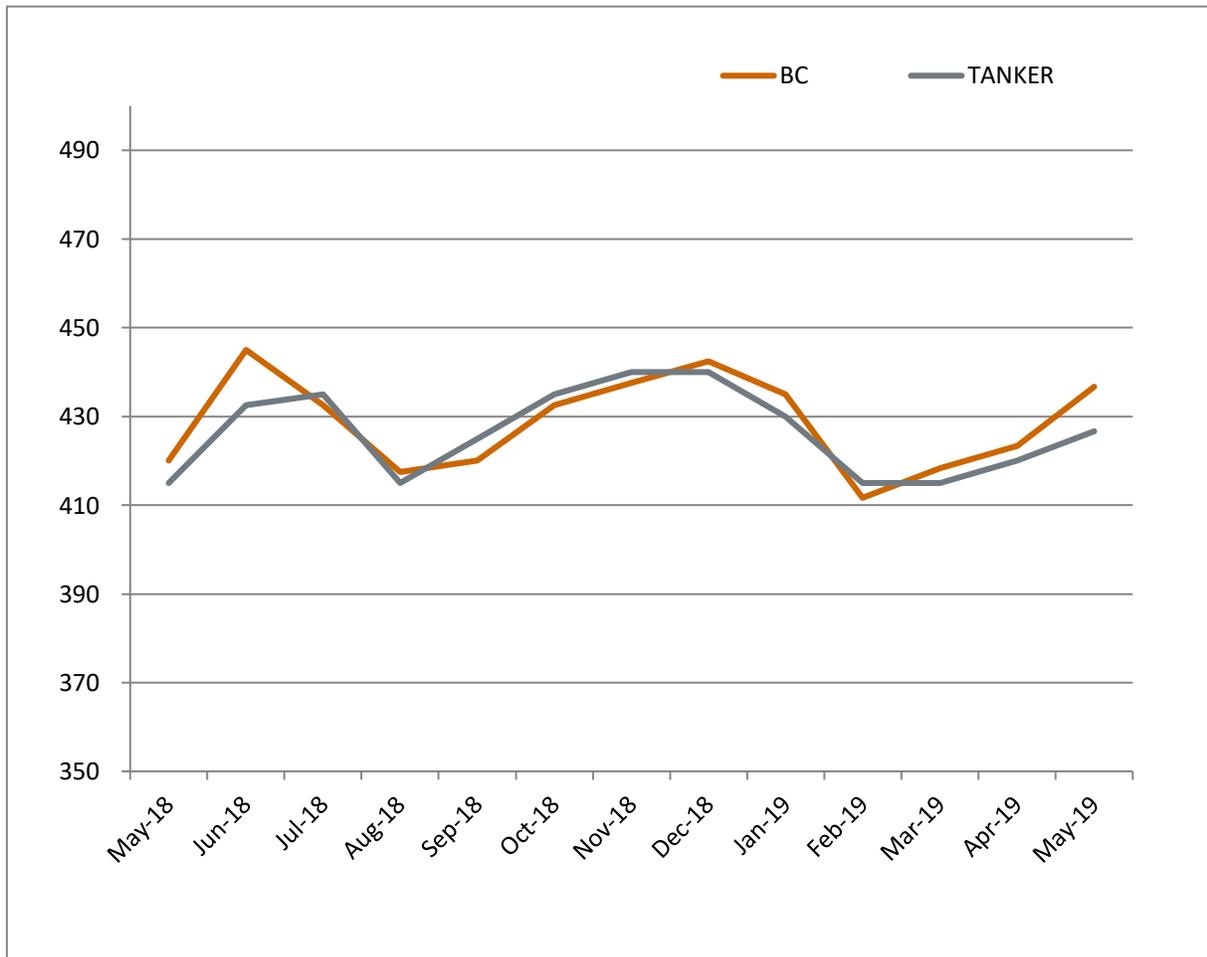


IV. DEMOLITION

1) 선가

해체선가 (US\$/LDT)	2017 평균		2018 평균		2019 평균		2018 년 5 월	2019 년 5 월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월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365.21	37.5%	432.92	18.5%	420.67	-2.8%	432.50	426.67	0.0%	-1.3%
BC	370.83	38.5%	440.63	18.8%	424.00	-3.8%	445.00	430.00	-1.5%	-3.4%

◆기준 : 인도해체선시장(USD/LDT), 증감율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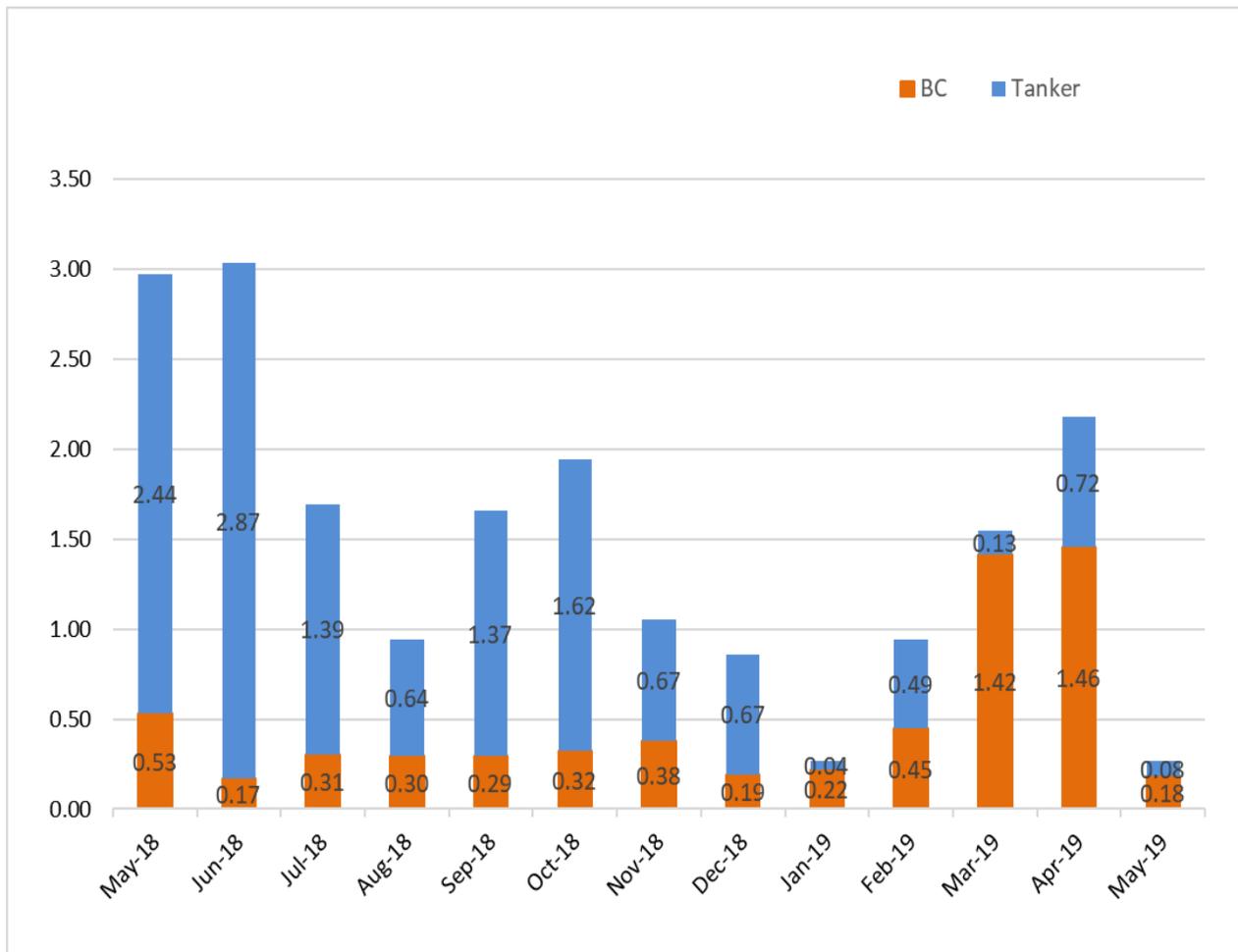


IV. DEMOLITION

2) 해체선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18 년		2019 년 누적				2018 년 5 월		2019 년 5 월			
	Million DWT	No.	Million DWT	누적율 (전년대비)	No.	누적율 (전년대비)	Million DWT	No.	Million DWT	증감율 (전년대비)	No.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20.86	195	1.47	7.0%	31	15.9%	2.44	22	0.08	-96.7%	2	-90.9%
BC	4.20	112	3.71	88.4%	50	44.6%	0.53	14	0.18	-65.7%	12	-14.3%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IV. DEMOLITION

V-1.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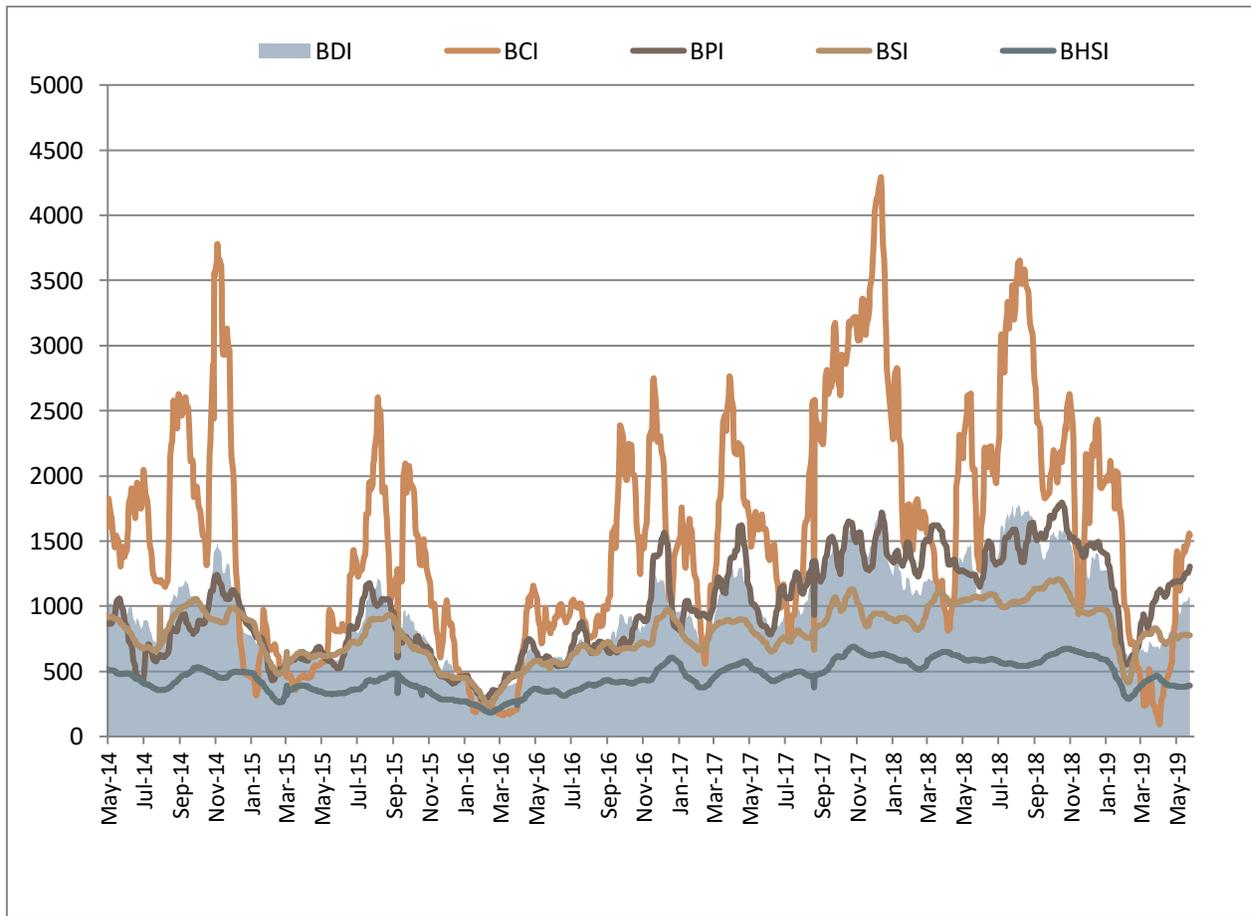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td)	REMARKS
CONT	TANTO STAR	13,193	5,431	1982	CHINA	B&W	390	AS IS Indonesia
GC	ST CONFIDENCE	4,706	2,461	1993	TURKEY	B&W	425	BANGLADESH



V . KEY INDICATORS

1) Baltic Index

	2019-05-24	2019-05-17	CHANGE	5 Year High	5 Year Low
BDI	1066	1040	▲ 26.00	1774	290
BCI	1545	1463	▲ 82.00	4293	92
BPI	1304	1255	▲ 49.00	1796	282
BSI	778	780	▼ -2.00	1207	243
BHSI	393	385	▲ 8.00	690	183





V . KEY INDICATORS

2) Bunker Price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Chang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IFO380	407.50	▼-18.00	392.50	▼-17.50	401.00	▼-20.00
IFO180	448.00	▼-12.00	435.00	▼-11.00	445.00	▼-33.50
MGO	613.50	▼-24.00	599.00	▼-24.50	644.00	▼-19.50
LSMGO	605.50	▼-41.50	587.00	▼-42.50	-	-

❖기준일 : 5 월 24 일 기준

3) Exchange Rate

구분	2019-05-24	2019-05-17	CHANGE
미국 달러	1191.20	1189.80	▲1.40
일본 엔(100)	1087.41	1083.06	▲4.35
유로	1332.12	1329.42	▲2.70
중국 위안	171.70	172.07	▼-0.37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VI. STL NEWS & INFORMATION

[시사상식] - 콜드체인

■ 농산물 등의 신선식품을 산지에서 수확한 다음 최종 소비지까지 저장 및 운송되는 과정에서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여 신선도와 품질을 유지하는 시스템이다. 농축수산물을 수확한 다음 저장과 운송 등의 유통과정을 통해서 최종 소비지까지 보내는 과정에서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시스템으로 신선도와 품질을 최대한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축수산물인 신선식품에 콜드체인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신선식품을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유통시킬 수 있게 되어 가격이 낮을 경우 더 긴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판매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또한,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전보다 더 먼 지역까지 운송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신선식품의 시장 범위가 더 넓어지는 효과도 가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딸기의 경우 밭에서 수확하면 며칠 후에는 부패하여 상품성이 거의 없어지게 되지만, 적절한 콜드체인 기술이 적용되면 상품성을 유지하는 기간이 몇 배나 늘어나게 되어 시장의 딸기 시세를 보아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전에는 딸기농장 주변에만 단기간 판매가 가능했지만, 오랜 기간 저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외에 수출까지 할 수 있어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신선식품의 저장과 운송의 제약을 상당부분 해결하는 성과를 가져오지만, 인위적으로 온도를 조정하기 위해 상당한 에너지가 소요되고 지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가 여름철 냉방을 위해 다량의 전기를 이용하고 프레온 등의 유해물질을 생성하여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과 유사하다.

[출처: 두산백과]

■ 관련기사 "가스공사, 버려지는 천연가스 냉열 활용해 '동북아 콜드체인' 구축"

한국가스공사가 버려지는 천연가스 냉열을 활용한 초저온 액화천연가스(LNG) 냉열에너지를 인근 지역의 냉동·냉장 물류단지에 공급하는 콜드체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운반이나 저장을 쉽게 하기 위해 냉각하는데 이를 LNG 라고 부른다. 이렇게 수입된 LNG 는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천연가스로 변환하는 기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냉열에너지(Cold Energy)가 발생한다. 냉열에너지는 액화탄산가스, 드라이아이스 등을 제조하거나 냉동창고, 냉열발전 등에 활용된다.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냉열에너지를 활용하는 산업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

VI. STL NEWS & INFORMATION

가스공사는 2013년부터 LNG 터미널에서 발생한 미활용 초저온 LNG 냉열에너지 활용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지난해 3월 본격적으로 인천항만공사와 LNG 냉열 공급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바다로 버려지는 냉열에너지를 인천신항 배후단지 콜드체인 클러스터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이 사업은 부가가치 4조 3,000억원, 고용유발 효과 2만 6,000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이 크다고 평가돼 기획재정부 선정 협업 우수과제로 지정되기도 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기존에는 식품 냉동을 위해 심야전기를 이용한 전기식 냉동기를 사용, 비싼 전기요금을 내면서도 보관 식품이 부패하는 문제점이 자주 발생했으나 냉열에너지를 이용한 냉동냉장 클러스터를 조성한 후 전기요금 70% 저감과 식품 신선도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일정은 가스공사에서 냉열에너지 기술검토와 냉열공급설비 건설·운영을 담당하고 인천시에서 인허가와 홍보·마케팅, 물류단지 활성화를 지원하며 인천항만공사에서 물류단지 조성, 사업자 공모와 민간기업 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사와 지자체가 한몸으로 업무협업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인천신항 콜드체인 클러스터는 지난해까지 업무협약 체결,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진행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입주기업 선정, 건설공사 발주가 추진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콜드체인 클러스터가 준공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LNG 냉열 이용으로 기존 전기식 냉동기 대비 연간 33억 3,000만원의 운영비 절감과 탄소배출량 연간 1만 4,000t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출처: 아주경제, 2019.05.21]



VII. CONTACT INFORMATION

STL GLOBAL Co., Ltd.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Tel: +82-2-776-0840 (Rep.) Fax: +82-2-776-0864
 E-mail: seoul@stlkorea.com
 www.stlkorea.com

| **SALE & PURCHASE**

Neal S.I. Kwon (권순일 상무)
 Senior Director
 Tel. 070-7771-6410
 Mob. 010-9496-0523
 snp@stlkorea.com
 neal@stlkorea.com (Personal)

Claire C.W. Ji (지차욱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1
 Mob. 010-6625-9785
 snp@stlkorea.com
 claire@stlkorea.com
 (Personal)

| **CHARTERING**

Sancho Kim (김현진 이사)
 Director
 Tel. 070-7771-6404
 Mob. 010-5756-9378
 snp@stlkorea.com
 sancho@stlkorea.com
 (Personal)

Leo J.M. Jung (정재문 부장)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09
 Mob.010-3273-4008
 snp@stlkorea.com
 leo@stlkorea.com (Personal)

| **RESEARCH**

Jiwon Song (송지원 사원)
 Tel. 070-7771-6417
 Mob. 010-4042-9803
 snp@stlkorea.com
 jiwon@stlkorea.com
 (Personal)

| **AGENCY OPERATION** (오수현 과장 Tel. 070-7771-6402)

| **FERROALLOY LOGISTICS** (안지영 차장 Tel. 070-7771-6405)

| **WAREHOUSE MANAGEMENT** (진정식 과장 Tel. 070-7771-6406)

E-mail. operation@stlkorea.com

에스티엘 지투어 (www.stlgtour.com)
 Tel. 1661-8388 (Rep.) Fax. 02-6499-8388
 E-mail. tour@stlgtour.com

기업/일반 단체 (이현성 부장 Tel. 070-4800-0153)
 항공 예약 (김영하 실장 Tel. 070-4800-0151)
 패키지/허니문/골프 (김홍모 대리 Tel. 070-4800-0150)

전남요트아카데미 (www.stlyacht.com)
 Tel. 061-247-0331 Fax. 061-247-0333
 E-mail. academy@stlyacht.com

| 보트/요트 면허취득 (이진행 실장 Tel. 010-2777-4027)